

# 마이토마이신, 수입중단에 국산화...

## 식약처, 2만4800바이알 확보에 유나이티드 생산 ... 교와하코 수입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이토마이신(Mitomycin)의 공급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토마이신은 녹내장과 라섹수술에 사용되는 항암제로 한국교와하코기린(대표 권태세)이 독점 공급해 왔으나 약가가 인하되자 돌연 수입중단을 선언해 안과를 중심으로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식약처는 9월 말까지 2012년 총 수입량보다 많은 2만4800바이알의 마이토마이신을 확보할 예정이며 일본산 직수입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마이토마이신 생산 의사를 밝힌데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허가와 생산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9월 말까지 확보한 공급량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생산물량을 고려하면 마이토마이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25>